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4. 6.(목) 11:00 < 4.7.(금) 조간 > 배포 2023. 4. 6.(목)

2023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신고

- 신고 56.3억불(전년동기 대비 +3%), 도착 33.8억불(△28%) 기록
- 그린필드(+13%) 투자 증가 등 한국 투자에 대한 신뢰 확인

2023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3% 증가한 56.3억불, 도착 기준으로 28% 감소한 33.8억불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신고금액을 달성하였다.

최근 주요 국가들의 긴축 기조, 고금리 상황, 자금시장 경색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 1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신고 실적을 갱신한 의미 있는 성과이다. 특히, 반도체·화공·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13% 증가하는 등 한국의 안정적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되었다.

【업종별】 제조업은 15.4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6%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은 39.5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5% 증가하였다. 제조업 중 전기·전자(+769%), 운송용 기계(+104%), 화공(53%) 등의 업종이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에서는 여가·스포츠·오락(+5,167%), 사업지원·임대(+1,956%) 등의 업종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가별】 유럽과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0.8억불(+258%), 14.0억불(+18%)로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각각 7.5억불(△14%), 3.0억불(△38%)로 전년동기보다 감소하였다.

【유형별】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41.8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13%가 증가하였고, 기업 지분 인수 또는 합병 등의 목적의 M&A 투자는 14.5억불로 16%가 감소하였다.

【자금별】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한 신규투자는 28.4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92%의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기존 법인에 재투자하는 증액투자는 29% 감소한 27.4억불을 기록하였다.

【지역별】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입된 투자는 35.2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17%가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의 투자는 46% 증가한 13.7억불을 기록하였다.

【향후 계획】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 요령 개정 등 투자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신하는 등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외교와 국가간 경제협력 행사 등과 연계한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INSC)과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INSC)을 따름

○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2023년 3월 31일까지의 잠정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 분기 발표되며, 2023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2023년 7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 고】 2023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상세자료
【별 첨】 2023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담당 부서	무역투자실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 장	남명우 (044-203-4080)
		담당자	사무관	전종형 (044-203-408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2023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상세자료**

Ⅰ. 총괄

□ (실적) '23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역대 최대**인 56.3억불 달성

○ (금액) 신고 56.3억불(전년동기比 +3.4%), 도착 33.8억불(△27.7%)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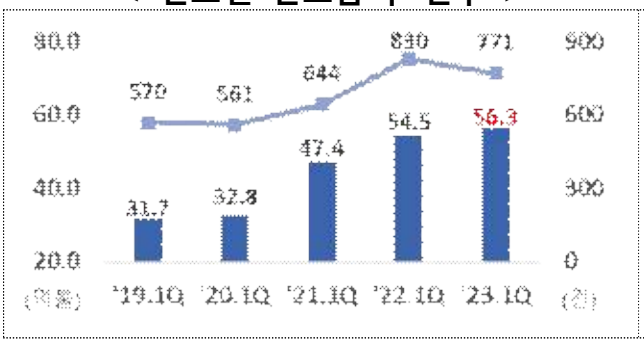
* 도착금액 역대 4위 / 종전 최대실적 : '22년 1분기 신고 54.5억불, 도착 46.8억불

○ (건수) 신고 771건(△7.1%), 도착 553건(△27.1%)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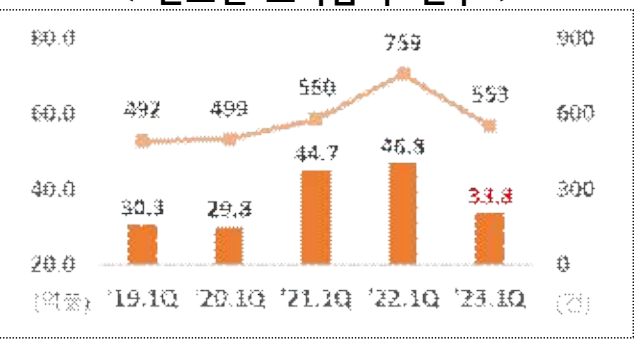
< 연도별 FDI 금액(단위 : 억불) >

구분	'23년 1분기	(전년比)	'22년 1분기	'21년 1분기	5년 평균 ('19~'23)
신고	56.3	+3.4%	54.5	47.4	44.5
도착	33.8	△27.7%	46.8	44.7	37.1

< 연도별 신고금액·건수 >



< 연도별 도착금액·건수 >



□ **(평가)** 주요국 긴축 기조, 고금리, 자금시장 경색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2.1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실적**(신고금액 기준)을 달성

○ 반도체·화공·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증가**

○ **한국의 안정적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확인

○ 외투 **지원제도 강화, 규제 혁신 등 투자환경 개선, 정상외교 및 경제협력행사 연계** IR 등을 통해 외투 확대 모멘텀 유지노력 지속

Ⅱ. 세부 동향(업종별 · 국가별 · 유형별 · 자금별 · 지역별)

* 아래의 세부 동향은 모두 신고기준임

1. 업종별

□ (금액) **제조업**(15.4억불, △6.2%, 비중 27%)은 **감소**, **서비스업**(39.5억불, +4.8%, 비중 70%)과 **기타업종**(1.4억불, +47.7%, 비중 3%)은 **증가**

* 기타업종 : 1차 산업(농·축·수산·광업),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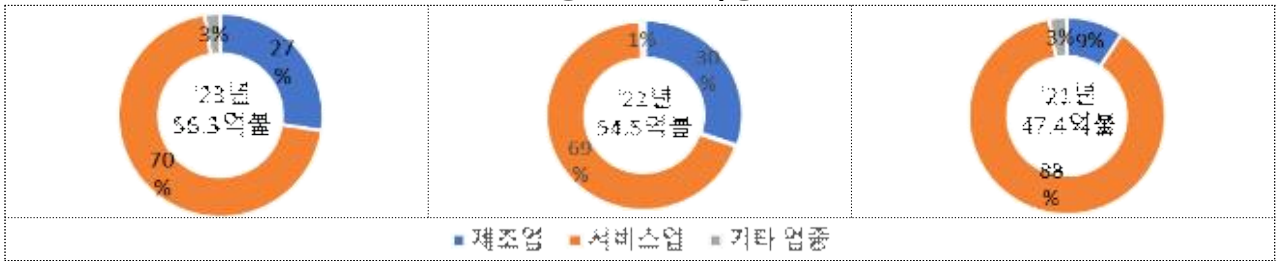
< 업종별 신고금액 (단위 : 백만불) **>**



< 업종별 신고건수 (단위 : 건) **>**



< 업종별 FDI 비중 >



○ (제조업) **15.4억불**(전년동기比 △6.2%, 비중 27%)

< '23년 신고금액 >



< '22년 신고금액 >



- (증가업종) **전기 · 전자**(+769.4%), **운송용 기계**(+103.6%), **화공**(+53.0%) 등

  * 주요 투자사례 : A社(3.7억불, 전기·전자), B社(1.0억불, 전기·전자), C社(0.9억불, 화공)

- (감소업종) **의약**(△99.1%), **식품**(△97.9%), **기계장비 · 의료정밀**(△12.0%) 등

○ (서비스업) 39.5억불(전년동기比 +4.8%, 비중 70%)

< '23년 신고금액 >



< '22년 신고금액 >



- (증가업종) 여가·스포츠·오락(+5,167.4%), 사업지원·임대(+1,956.3%), 숙박·음식점(+314.5%), 금융·보험(+116.2%)

  * 주요 투자사례 : D社(12.1억불, 금융·보험), E社(1.6억불, 숙박·음식점), F社(1.3억불, 금융·보험)

- (감소업종) 운수·창고(△93.5%), 연구개발(△76.5%), 정보통신(△33.9%) 등

□ (건수) 제조업(93건, △2.1%), 서비스업(644건, △7.9%)·기타업종(34건, △5.6%) 모두 전년동기 대비 감소

2. 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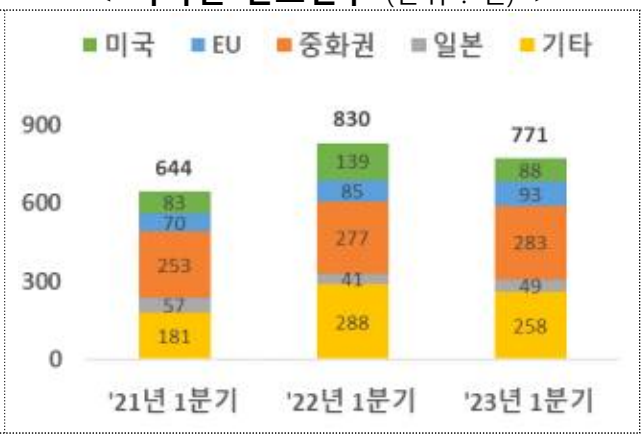
* EU : 영국 포함, 중화권 : 중국·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

□ (금액) EU(20.8억불, +257.9%, 비중 37%), 중화권(14.0억불, +17.6%, 비중 25%)은 증가, 미국(7.5억불, △13.9%, 비중 13%), 일본(3.0억불, △38.1%, 비중 5%), 기타 국가(11.1억불, △52.3%, 비중 20%)는 감소

< 국가별 신고금액 (단위 : 백만불) >



< 국가별 신고건수 (단위 : 건) >



○ **(미국) 7.5억불**(전년동기比 △13.9%, 비중 13%)

* 주요 투자사례 : G社1.3억불, 정보통신), H社(0.2억불, 전기·전자)

- **(업종별) 제조업**(1.5억불, +12.7%) **증가, 서비스업**(6.0억불, △18.7%)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7.4억불, △11.3%)와 **M&A**(0.2억불, △91.2%) **모두 감소**

○ **(EU) 20.8억불**(전년동기比 +257.9%, 비중 37%)

* 주요 투자사례 : D社(12.6억불, 금융·보험), I社(3.0억불, 기계장비)

- **(업종별) 제조업**(5.1억불, +172.8%), **서비스업**(14.9억불, +303.2%) **모두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9.2억불, +127.9%), **M&A**(11.6억불, +552.1%) **모두 증가**

○ **(중화권) 14.0억불**(전년동기比 +17.6%, 비중 25%)

* 주요 투자사례 : J社(5.0억불, 도·소매), E社(1.6억불, 식품)

- **(업종별) 제조업**(2.9억불, +76.6%), **서비스업**(11.1억불, +8.3%) **모두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13.3억불, +74.9%) **증가, M&A**(0.8억불, △82.2%) **감소**

○ **(일본) 3.0억불**(전년동기比 △38.1%, 비중 5%)

* 주요 투자사례 : C社(0.9억불, 화공), K社(0.4억불, 금속), L社(0.2억불, 전기·전자)

- **(업종별) 제조업**(2.0억불, +11.2%) **증가, 서비스업**(1.0억불, △66.8%)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2.4억불, +41.5%) **증가, M&A**(0.6억불, △81.8%) **감소**

○ **(기타 국가) 11.1억불**(전년동기比 △52.3%, 비중 20%)

* 주요 투자사례 : A社(3.7억불, 전기·전자), M社(3.6억불, 정보통신)

- **(업종별) 제조업**(4.0억불, △59.2%), **서비스업**(6.5억불, △51.3%) **모두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9.5억불, △38.4%), **M&A**(1.6억불, △79.9%) **모두 감소**

□ **(건수) 미국**(88건, △36.7%), **기타 국가**(258건, △10.4%)는 **감소, EU**(93건, +9.4%), **중화권**(283건, +2.2%), **일본**(49건, +19.5%)은 **증가**

3. 유형별

□ (금액) 그린필드(41.8억불, +12.5%, 비중 74%) 증가, M&A(14.5억불, △16.0%, 비중 26%) 감소

< 유형별 신고금액 (단위 : 백만불) >



< 유형별 신고건수 (단위 : 건) >



○ (그린필드) 41.8억불(전년동기比 +12.5%)로, 제조업(14.6억불, +21.2%)과 서비스업(26.5억불, +6.6%) 모두 증가

* 주요 투자사례 : A社(3.7억불, 전기·전자), M社(3.6억불, 정보통신), I社(3.0억불, 기계장비)

○ (M&A) 14.5억불(전년동기比 △16.9%)로, 제조업(0.9억불, △80.6%)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13.0억불, +1.3%)은 증가

* 주요 투자사례 : D社(10.5억불, 금융·보험), N社(1억불, 금융·보험)

□ (건수) 그린필드(704건, △5.8%), M&A(67건, △20.2%) 모두 감소

4. 자금별

□ (금액) 신규투자(28.4억불, +91.8%, 비중 50%)는 증가, 증액투자(27.4억불, △29.0%, 비중 49%) 및 장기차관(0.5억불, △52.7%, 비중 1%)은 감소

< 자금별 신고금액 (단위 : 백만불) >



< 자금별 신고건수 (단위 : 건) >



○ **(신규투자) 28.4억불**(전년동기比 +91.8%)로 **제조업**(7.9억불, +21.0%)과 **서비스업**(20.2억불, +145.3%) **모두 증가**

* 주요 투자사례 : I社(3억불, 기계장비), B社(1억불, 전기·전자)

○ **(증액투자) 27.4억불**(전년동기比 △29.0%)로 **제조업**(7.3억불, △23.7%)과 **서비스업**(19.0억불, △33.8%) **모두 감소**

* 주요 투자사례 : J社(5억불, 도·소매), M社(3.6억불, 정보통신)

○ **(장기차관) 0.5억불**(전년동기比 △52.7%)

□ **(건수) 신규투자**(485건, △6.6%), **증액투자**(259건, △6.8%), **장기차관**(27건, △18.2%) **모두 감소**

5. 지역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비수도권 : 이외 14개 시·도

□ **(금액) 수도권**(35.2억불, △16.6%, 비중 62%) **감소, 비수도권**(13.7억불, +46.1%, 비중 24%) **증가**

< 지역별 신고금액 (단위 : 백만불) **>**



< 지역별 신고건수 (단위 : 건) **>**



○ **(수도권) 35.2억불**(전년동기比 △16.6%)로 **제조업**(2.2억불, △34.8%)과 **서비스업**(32.5억불, △39.2%)은 **모두 감소**

* 서울(28.39억불, △11.9%), 경기(5.63억불, △24.1%), 인천(1.18억불, △53.8%)

○ **(비수도권) 13.7억불**(전년동기比 +46.1%)로 **제조업**(7.2억불, +214.0%)은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5.6억불, △80.6%)은 **감소**

* 증가 시·도 : 대구(0.16억불, +9,845.3%), 광주(3.71억불, +47,334.0%), 울산(0.42억불, +286.9%), 세종(0.36억불, +928.6%), 강원(0.24억불, +418.3%), 충북(0.50억불, +78.8%), 전북(5.85억불, +482.3%), 전남(1.26억불, +956.3%), 경남(0.10억불, +35.4%)

* 감소 시·도 : 부산(0.32억불, △69.0%), 대전(0.02억불, △83.1%), 충남(0.26억불, △56.2%), 경북(24억불, △2.1%), 제주(0.26억불, △95.5%)

□ (건수) 수도권(489건, △25.9%) 감소, 비수도권(144건, +16.1%) 증가

○ (수도권) 제조업(52건, △5.5%), 서비스업(424건, △27.8%) 모두 감소

○ (비수도권) 제조업(33건) 동일, 서비스업(91건, +23.0%) 증가

Ⅲ. 2023년 1분기 주요 외투 주요 사례(0.5억불 초과 상위 18개사)

구분	투자기업	금 액 (억불)	업종	유형	주요 내용
계		42.2			
1	ㅇㅇ社	12.1	서비스 (금융·보험)	M&A 그린필드	보안 서비스
2	ㅇㅇ社	5.0	서비스 (도·소매)	그린필드	전구체
3	ㅇㅇ社	3.7	제조 (전기·전자)	그린필드	반도체 패키징
4	ㅇㅇ社	3.6	서비스 (정보통신)	그린필드	콘텐츠 제작·유통 확장
5	ㅇㅇ社	3.1	서비스 (부동산)	그린필드	골프장·리조트
6	ㅇㅇ社	3.0	제조 (기계장비)	그린필드	풍력터빈 부품
7	ㅇㅇ社	1.7	서비스 (금융·보험)	M&A	의료기기 기업 인수
8	ㅇㅇ社	1.6	제조 (식품)	그린필드	식품
9	ㅇㅇ社	1.3	서비스 (정보통신)	그린필드	메타버스 플랫폼
10	ㅇㅇ社	1.3	서비스 (금융·보험)	그린필드	금융·보험 서비스
11	ㅇㅇ社	1.0	제조 (전기·전자)	그린필드	전기차용 배터리
12	ㅇㅇ社	0.9	제조 (화공)	그린필드	배터리 소재
13	ㅇㅇ社	0.8	서비스 (금융·보험)	그린필드	미정
14	ㅇㅇ社	0.7	서비스 (여가·스포츠)	그린필드	복합 리조트
15	ㅇㅇ社	0.7	제조 (섬유·직물)	그린필드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16	ㅇㅇ社	0.6	제조 (전기·전자)	그린필드	미정
17	ㅇㅇ社	0.6	제조 (운송용기계)	그린필드	자동차용 철골 구조물
18	ㅇㅇ社	0.5	제조 (화공)	그린필드	생활용품